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4-5

TEL.(02)726-1010(대), 1176 FAX.(02)726-1292

연구원 홈페이지(www.sdi.re.kr)를 통해서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도시동향

16

2001년 2월 5일

HEADLINE NEWS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뉴욕)

뉴욕市는 지난해 12월, 5개 Borough의 성인 2,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안전, 공원, 도서관, 위생, 교통, 주택, 상수도, 도로 등 市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 市民들은 교육(21%), 안전(20%), 주택(7%), 직업(5%)順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市民들은 거주지와 뉴욕市 전반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의 68%가,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83%가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립학교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가 35%, '열악하다'가 13%를 차지했는데, 주로 대규모 학급 편성과 교사 자질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경찰서비스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가 17%, '열악하다'가 10%, 거주지 주변가로의 청결도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가 29%, '열악하다'가 12%를 차지했는데, 주된 불만사항으로는 가로의 휴지통이 쓰레기로 넘쳐나거나 휴지통이 충분하게 설치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지하철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가 29%, '열악하다'가 12%로 나타났는데, 긴 배차간격, 불결, 혼잡, 느린 운행속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www.council.nyc.ny.us/loi/citysvcs.pdf)

HIGHLIGHTS

도시관리

1 공동구(共同溝) 여유공간 민간에 개방 (일본 도시)
2 필지 단위에서 가구(街區) 단위로 건축규제 완화(동경

도시환경

3 「베를린 삼림현황 보고서 2000」 발간 (베를린)
4 일본 최초로 「수원세(水源稅)」 도입 추진 (코우치縣)
5 경유사용 통학버스에 먼지저감장치 장착비용 지원 (캘리포니아州)

도시교통

6 환상(環狀) 도로 정비 추진 (동경)
7 교통정책 · 도로교통안전 홍보 위해 '교통의 날' 행사 개최 (홍콩)
8 택시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홍콩)
9 중차량 대상 거리비례 요금제 시행 (스위스 도시)

행.재정

10 월드컵구장 연중무휴로 운영 (일본 : 사이타마縣)
11 市 간부 · 부서별 목표관리결과 공개 (워싱턴 D.C.)
12 기업메세나운동 지원 및 NPO와의 문화네트워크 구축 추진 (동경)

사회복지

13 새로운 「복지개혁추진계획」 수립 (동경)
14 아동 · 여성 노숙자 증가 (보스턴)
15 담배자판기 옥외설치 금지 추진 (일본 : 아오모리縣)

1 공동구(共同溝) 여유공간 민간에 개방 (일본 도시)

일본 건설성은「IT 사회를 위한 기반 구축」을 금년도 중점시책으로 삼고, 도로관리용 광섬유를 '공동구(共同溝)'에 수용함과 동시에 이 여유공간을 민간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도시 내 민간 관로(管路)와 접속시켜 가정이나 사무실까지 고속 대용량의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2000년 6월 현재 이미 약 450km의 민간 광섬유 입구(入溝)가 끝난 상태이며, 금년도에는 약 1,100km의 광섬유가 설치될 예정이다. 민간이 광섬유를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1km당 약 1억엔이 소요되지만, '공동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1km당 1천만엔 이하로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중복투자 방지 및 시너지 효과 등도 기대된다.

(www.moc.go.jp/road/zaigen/h13)

2 필지 단위에서 가구(街區) 단위로 건축규제 완화 (동경)

東京都의「도시계획심의회・도시계획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회경제체제의 변화를 고려한 東京의 새로운 도시계획 기본방향'의 최종안을 작성했다. 이 안은 도심부에서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목조주택 밀집지역에서의 재건축시 종전의 필지 단위 건축규제에서 가구(街區) 단위로 독자적인 건축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가구(街區) 재편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정책유도형의 도시계획을 지향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의미한다.

(www.toseishimpo.co.jp/news/news.html)

3 「베를린 삼림현황 보고서 2000」 발간 (베를린)

베를린市는 최근「베를린 삼림현황 보고서 2000」을 발간했다. 베를린市는 그동안 대기오염 및 지하수 감소 등으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삼림 보호를 위해 매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연자원을 관리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수목의 수관분석 결과 및 삼림보호 현황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과 이들이 숲에 미치는 생태적 영향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숲을 둘러싼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이러한 숲의 장기적 변화를 쉽게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숲의 안정된 생태계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삼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 그리고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www.sensut.berlin.de/sensut/umwelt/waldzustand/vorbemerkung.shtml)

4 일본 최초로 「수원세(水源稅)」 도입 추진 (코우치縣)

일본 코우치縣은 이르면 2002년부터 수원지(水源地)의 삼림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물 사용자인 주민에게 이른바「수원세(水源稅)」를 부과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코우치縣은 수원세 신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금 징수가 아니라, 주민의 환경보전의식 고양에 있다고 강조했다.「수원세」는 일본의 각 지자체가 자주(自主)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목적세의 일종으로서,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코우치縣이 수원세 신설을 발표했다.

(www.asahi.com/0101/news/politics01005.html)

5 경유사용 통학버스에 먼지저감장치 장착비용 지원 (캘리포니아州)

최근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먼지가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에 따라, 캘리포니아州는 먼지오염 노출에 취약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유사용 통학버스에 대한 먼지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39대의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먼지저감장치의 비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80% 이상의 먼지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지저감장치 장착비용은 1개당 60만원~100만원으로, 전체 약 8억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 약 5억 4천만원을 州 지역대기관리본부(AQMD)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州 대기자원위원회(ARB)와 먼지저감장치 제작업체가 지원하기로 했다.

(www.aqmd.gov/news1/School_Bus_Test.htm)

6 환상(環狀) 도로 정비 추진 (동경)

東京都는 환상(環狀) 도로가 부족하여 네트워크가 단절되고 도시부도로의 교통혼잡과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로주행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개의 환상 도로를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고속도로공단(Japan Highway Public Corporation)은 고속도로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기존의 Tomei & Meishin 고속도로의 대체노선으로 총연장 500km의 New Tomei & New Meishin 고속도로를 새롭게 건설하고 있다. 장래 수요를 예측하여 기본 차로수 6차로(왕복), 설계속도 140km/h로 건설되고 있는 이 고속도로는 일본의 3대 광역도시를 연결하고 범국가적 교통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기능하게 될 전망이다.

(日本經濟新聞, 2000. 12. 15)

(GENERAL INFORMATION, 2000, 일본고속도로공단)

7 교통정책·도로교통안전 홍보 위해 '교통의 날' 행사 개최 (홍콩)

대규모 교통축제인 '교통의 날 2000(Transport Day 2000)' 행사가 지난해 12월 3일 홍콩의 Victoria Park에서 열렸다. 세 번째 맞는 이번 행사는 시민 및 대중교통 운영자에게 도로교통 안전 및 깨끗한 공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최되었고, 교통표지판, 환경친화형 버스 등의 전시회도 열렸다. 또한 교통부에서는 그 동안 시행되어온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정책의 성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市民 및 교통 유관기관의 협조를 유도했다. 서울시도 새로운 교통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市民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참조할 만한 행사이다.

(www.info.gov.hk/td/eng/press/td.html)

8 택시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홍콩)

홍콩 교통부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는 승객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조치는 뒷좌석 안전띠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에 등록되는 택시들은 뒷좌석의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홍콩은 이미 개별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1996년 6월부터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 결과 뒷좌석 사상자가 17%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고, 이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택시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된 승객은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www.info.gov.hk/td/eng/press/td_index.html)

9 중차량 대상 거리비례 요금제 시행 (스위스 도시)

지난 30년간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등지에서 알프스산을 넘는 화물차량들이 10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철도를 통한 화물운송이 급감하고 차량을 통한 화물운송이 급증함에 따라, 스위스는 이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2001년 1월 1일부터 중차량을 대상으로 거리비례제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요금은 3.5톤을 넘는 스위스 국내외 화물운송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고속도로뿐 아니라 스위스 내 모든 국도에서도 징수한다. 요금수준은 스위스 국내에서의 운행거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 총중량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Tolltrans, 2000. 11, Traffic Technology International)

월드컵구장 연중무휴로 운영 (일본 : 사이타마縣)

일본 사이타마縣은 지난해 12월, 우라와市에 건설중인 축구전용구장인 '사이타마경기장 2002'의 관리운영방침을 정하고, 유지보수 때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이용요금은 프로와 아마추어로 구분해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이벤트 개최 때에는 총 수입의 5%를 징수하기로 했다. 이 경기장은 2002년 월드컵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日本經濟新聞, 2000. 12. 19)

市 간부·부서별 목표관리결과 공개 (워싱턴 D.C.)

워싱턴 D.C.는 2000년도 市 정부의 목표관리(MBO) 결과를 공개했다(본지 제2호 「시정목표 달성도 홈페이지 공개」 기사 참조). 워싱턴市의 목표관리제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을 포함한 간부진과 개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관련내용이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되어왔다. 지난해 12월 현재 최종결과를 보면, 공약(公約)한 98개 주요목표 중 67개가 초과 달성되어 목표대비 약 68%의 성과를 보였다. 市는 목표달성도가 높지 않은 이유로, 대부분의 목표 수준들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문별 목표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가정복지 부문은 21개 목표 중 18개, 지역경제·산업진흥 부문은 25개 목표 중 17개, 주거환경·근린주구개선 부문은 19개 목표 중 9개, 市民의 시정참여 부문은 10개 목표 중 8개, 민원업무의 효율화 부문은 21개 목표 중 15개 목표가 달성되었다. 달성된 주요 목표의 지표들을 살펴보면, 업무효율화와 관련해 자동차국의 면허·등록 업무의 80%에 대해 그 대기시간을 30분으로 줄였고, 200개 블록에 해당하는 도로를 재포장했다.

市民들은 市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을 포함한 市 간부진과 부서별 목표관리 카드 및 개별 목표의 달성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이 제도는 市 정부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책임행정 구현, 그리고 市民 중심의 시정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www.washingtondc.gov/mayor/speeches/2001/01_04_01.htm)

※ 기업메세나운동 지원 및 NPO와의 문화네트워크 구축 추진 (동경)

東京都 생활문화국은 지난해 12월「東京都의 당면한 문화정책수법의 전환과 대응」을 발표하고, 기존의 감상(鑑賞) 사업과 문화시설 정비 중심의 문화정책 기조에서 탈피, 앞으로는 都 보유 문화시설의 기획력 및 관리 강화를 도모하고 기업메세나운동* 지원 및 NPO와의 문화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키로 했다. 이를 계기로 都는 공공시설을 적극 개방하는 등 문화창조의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www.toseishimpo.co.jp/news/news.html)

* 기업메세나운동 : 기업이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후원·자금 지원을 하는 것을 가리킴.

※ 새로운「복지개혁추진계획」수립 (동경)

東京都는 지난해 12월, 都民 모두가 질 높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복지의 개념과 비전, 복지시스템 구축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東京都복지개혁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복지구조는 행정이 서비스 제공에서부터 분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관리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고령화의 진전과 사회경제의 성숙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都民의 다양하고 고도화된 요구에 행정이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이용자가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과 양 확보, 이용자 스스로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이용자 지향의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경쟁체제 도입,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서비스 제공, 사회의 변화에 따른 보다 진전된 복지 구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www.metro.tokyo.jp)

아동·여성 노숙자 증가 (보스턴)

보스턴市는 2000년 12월 11일 기준으로 보스턴市 노숙자 센서스를 실시하였다. 센서스 실시 결과, 노숙자수는 총 5,906명으로 전년도 대비 1.5% 증가했으며, 남성 노숙자가 전체의 54.6%를 차지했으나, 증가율은 아동 및 여성 노숙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노숙자수는 61% 증가한 반면, 아동 노숙자는 3배 증가하여 2000년 현재 1,310명의 아동 노숙자가 발견되었으며, 여성 노숙자 또한 같은 기간 동안 77% 증가하였다. 가족단위 노숙자도 2,035명으로, 전년도 대비 6.8% 증가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남성 노숙자의 대부분은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과 같은 만성질환 또는 장애를 갖고 있으며, 성인 노숙자의 29%, 가족 노숙자의 25%가 일을 하고 있지만, 주거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ci.boston.ma.us/mayor/news/)

담배자판기 옥외설치 금지 추진 (일본 : 아오모리縣)

일본 아오모리縣은 최근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담배자판기의 옥외설치 금지」조례(안)을 마련했다. 아오모리縣은 담배자판기의 옥외 설치를 금지하고 직접 대면(對面) 판매를 실시하면 미성년자의 담배구매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www.tokyo-np.co.jp)